

한국의 ESG 법제와 지속 가능 경영 성과: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한 G7 및 아시아 이머징 국가와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

ESG Regulatory Frameworks and Corporate ESG Sustainability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G7 and Emerging Asian Countries

백승호

이 연구는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가를 주요 해외 기업들과 비교하고, 한국 기업의 ESG 성과와 법제 현황과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했다.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하여 한국의 ESG 성과를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들과 비교하며,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종합 지속 가능성 점수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를 능가하고 G7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ESG 관련 법안을 검토하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성과와 다양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법제 발전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ESG 관련 법안 발의의 증가로 인해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ESG 점수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ESG 성과가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공적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ESG 성과가 국제 경쟁력 강화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기업 및 정부가 ESG 경영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호 교수는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 센터와 브루클린 칼리지 금융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는 주식 수익률의 거시경제적 충격 반응,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ESG 경영활동과 기업가치 평가, 채권시장의 이자율 구조, 기업 부채 구조의 결정요인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Finance Research Letters에 게재된 코로나19 관련 논문은 700회 이상 인용되었고, 그의 연구는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Applied Economic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Review, Journal of Futures Markets, Journal of Fixed Income 등 국제 저명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앞두고 있다. CUNY 브루클린 칼리지의 MS Finance 프로그램 설계와 Beta Gamma Sigma 챕터 설립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CUNY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교수진으로서 금융경제학 전공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ESG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2024년 12월자 법경제학연구 (KCI 등재)에 게재되었다. 현재 국내 정부기관 및 UN 산하 기관들과 ESG 관련 공동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Date & Time: May 13th, 2025.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